

# 최근 노동시장 동향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

남재량(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분석센터 소장)

- ◎ 6월 취업자 수가 39만 8천 명 증가(전년동월대비)하여 10개월 연속 이어지던 40만 명 이상의 고용증가를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하였으며, 2014년 들어 가장 저조한 성과
  - 취업자 증가가 2013년 2월(20만 1천 명 증가)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 왔으며, 이러한 성과를 실현케 한 대부분의 요인들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, 5월의 고용성장세 둔화(41만 3천 명 증가)가 6월에도 지속
  -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데에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수 있으나, 세월호 참사의 여파를 포함한 내수부진과 최근 금융산업 부진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
  - 고용률은 60.9%로 전년동월대비 0.4%포인트 증가하였으며(15~64세 고용률은 65.7%로 0.6%포인트 상승), 2013년 초반 이후 계속되었던 고용률 증가폭 확대 추세 둔화가 5월에 이어 지속
  - 실업자 수는 94만 9천 명으로 13만 6천 명 증가하였고, 실업률도 0.4%포인트 상승하여 실업자 증가 및 실업률 상승이 7개월 연속 지속되고 10만 명 이상의 실업자 증가가 5개월 연속 계속되는 것은 비경제활동인구의 감소(14만 1천 명 감소, 증가율 -0.9%) 등을 감안할 때, 여전히 노동시장 여건 개선을 주로 반영
  
- ◎ 이러한 6월의 취업자 증가폭 둔화는 최근의 고용호조세 지속을 가능케 하였던 요인들 가운데 상당 부분들이 약화된 데에 주로 기인

- 최근의 고용호조세 지속을 가능케 하였던 요인들은 (1)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요인들, (2) 최근에 나타난 고용동향상의 새로운 요인들의 지속, (3)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증가, (4) 기저효과, 그리고 (5) 기타의 요인들
  - (1) 장기·구조적 측면: 상용직의 지속적인 증가 및 50세 이상 연령층 고용증가 지속
  - (2) 최근 특징: 중소기업, 서비스업, 여성 위주의 고용성장
  - (3) 경기회복: 서비스업 임시직 등의 고용증가
  - (4) 기저효과: 1월과 2월의 월등한 고용성과는 설 특수와 기저효과에도 일정 부분 기인
  - (5) 기타: 제조업 및 대규모 사업체의 꾸준한 고용성과
  
- ◎ 2014년 6월 고용동향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신규채용 감소 지속
  - 근속기간 3개월 미만 임금근로자 수가 15만 3천 명 감소
  - 이는 2013년 9월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세로 반전된 것으로 보이던 신규채용이 4월부터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여 5월에 큰 폭으로 감소(23만 4천 명)한 데에 이어 6월에도 지속되는 것으로서 주목할 필요
  - 임금근로자의 신규채용 감소는 임시직이나 일용직뿐만 아니라 상용직(2만 명 감소)에서도 관찰되고 있음에 유의
  
- ◎ 부문별 분석을 통해 고용성과를 보다 자세히 살펴봄
  
- ◎ 연령별로 볼 때, 여전히 50세 이상 연령층이 취업자 증가를 주도하는 가운데 청년층 고용이 지난 해 9월에 이어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며, 이에 더하여 40대의 고용증가폭 둔화가 5월에 이어 지속
  - 고령화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50세 이상 연령층(58만 7천 명 증가)에서 취업자 수가 36만 8천 명 증가하여 여전히 취업자 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나(50대 18만 1천 명 증가, 60세 이상 18만 7천 명 증가), 증가폭은 둔화
  - 청년층 취업자 수는 청년인구 감소(5만 7천 명 감소)에도 불구하고, 4만 2천 명 증가하여 고용증가에 기여

- ※ 청년층을 구성하는 세부 연령집단별 변화는 5월과 유사하며, 구체적으로 10대 취업자 수가 증가(3만 1천 명)하였고, 20대 전반(20~24세)의 고용도 4만 명 증가한 반면, 20대 후반(25~29세)의 고용은 3만 명 감소하였는데, 이는 주로 20대 후반 연령층 인구감소(5만 3천 명 감소)와 관련
- 40대 연령층의 취업자 수 증가는 최근 수년 동안 미미한 수준에 그쳤으나(2012년 11천 명 증가, 2013년 22천 명 증가), 2014년 들어 1~4월 평균 9만 1천 명 증가하였다가 5월의 증가폭 둔화(2만 2천 명)에 이어 6월에도 둔화 지속(1만 3천 명 증가)
- ◎ 여성의 고용성장 주도 지속
  - 6월 여성 취업자 수 20만 3천 명 증가, 남성 19만 5천 명 증가
  - 여성이 2013년 7월부터 전체 고용성장을 주도하다가 지난 3개월(13.12~14.2) 동안 남성이 여성을 추월하였으나, 3월 들어 다시 여성 주도로 복귀하였으며 4월과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속
  - 여성이 남성을 능가하여 고용증가를 주도하는 현상은 최근의 고용성장을 설명하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
- ◎ 고용률의 증가폭은 3월 이후 둔화되고 있으나 5월의 증가분 정도를 지속하고 있으며, 남성 20대 전체와 30대 후반 그리고 여성 40대에서 고용률이 감소하였으나, 이외의 모든 연령집단들(5세 단위)에서 고용률 상승
  - 2012년 1월 이후 계속된 고용률 감소 추세가 2013년 1월 이후 증가 추세로 반전되었으며, 2013년 들어 회복세를 보이던 고용률이 2014년 3월부터 증가폭 둔화 지속
  - 남성 고용률은 71.8%로서 0.2%포인트 상승하였으며, 여성 고용률은 50.4%로 0.5%포인트 상승
  -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의 고용률이 상승한 가운데 50대 고용률 상승 추세도 지속(50대 고용률 74.7%로 전년동월대비 0.3%포인트 상승)
  - 20대의 고용률 하락은 전적으로 남성에 기인(남성 0.8%포인트 감소, 여성 0.8%포인트 상승), 10대 여성 고용률이 크게 상승(1.6%포인트 상승)

◎ 상용직 주도의 고용증가세 지속

- 상용직 종사자가 46만 2천 명 증가하여 여전히 고용증가를 지속적으로 주도하고 있으나, 임시직은 7만 8천 명 증가한 반면, 일용직은 11만 명 감소하였으며, 비임금근로자도 3만 2천 명 감소
- 종사상 지위로 본다면 임시직 증가폭 둔화(5월 임시직 12만 1천 명 증가)가 6월 고용성과 하락의 주요 요인

◎ 서비스업 위주의 고용증가세 지속되고 있으나, 증가폭 둔화

- 농림어업을 제외한 여러 산업에서 고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30만 3천 명 증가하여 고용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나, 5월에 크게 둔화된 증가폭이 6월에도 유사하게 유지
- 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폭 둔화는 도·소매업의 고용증가가 3만 3천 명으로 둔화된 데다가 금융·보험업의 고용감소(4만 8천 명 감소) 및 공공행정의 고용감소(2만 3천 명 감소)에 주로 기인(가구내 고용 6만 1천 명 감소)
  - ※ 금융·보험업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어느 정도 회복한 이후 연도별로 등락하고 있는 가운데 4월과 5월에 이어 6월에도 고용감소
- 서비스업 가운데 특히 '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'이 고용증가를 주도하여 왔는데, 6월에도 14만 8천 명 증가하여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, 숙박·음식점업도 12만 9천 명 증가
  - ※ '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' 위주의 고용증가는 여성 주도의 고용성장 및 돌봄서비스의 증가와 밀접하게 관련
- 반면 제조업에서 16만 5천 명 증가하여 고용성과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고 있으며, 건설업에서 2만 3천 명 증가
- 교육서비스업도 서비스업 고용증가에 다소 기여(4만 6천 명 증가)

◎ 대부분의 산업들에서 신규채용 감소

-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음식·숙박업을 제외한 대부분 대분류 업종에서 신규채용이 감소

- ◎ 노동시장의 역동성 저하 지속
  - 이직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규채용 감소로 입직도 3개월 연속 감소하여 노동시장의 플로우 둔화
  
- ◎ 중소기업 주도 고용증가세 지속되고 있으나, 증가폭 둔화
  - 중소기업의 취업자 수가 29만 6천 명 증가하여 최근의 중소기업 주도의 고용성장이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증가폭은 상당히 둔화
  - 대규모 사업체의 고용도 10만 2천 명 증가하여 취업자 증가에 기여
  - 취업자의 대부분(90% 이상)이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상반기 동안 대기업이 고용증가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 왔으나,
  - 2013년 하반기 들면서부터 다시 중소기업이 고용증가를 주도하기 시작하였으며, 이후 사업체 규모 간 고용성과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나, 2014년 3월부터 중소기업 고용증가폭 감소로 격차는 다시 감소
  - 대규모 사업체는 고용성과에서 최근 2년간 큰 등락 없이 선전을 거듭
  
- ◎ 고용증가가 민간부문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, 공공부문 취업자 수는 감소
  - 6월 공공부문 취업자 수 2만 3천 명 감소

### 최근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

- ◎ 2014년 4월 명목임금(임금근로자 전체)이 1.7% 증가하였고 실질임금은 0.2% 증가하여 전년동월 실적에 미달
  - 4월 특별급여가 감소(전년동월대비 7.6% 하락)한 데에다 정액급여 상승률도 3.2%로 전년동월에 비해 낮아 명목임금 및 실질임금 상승률이 전년동월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 지속
  - 2014년 4월 협약임금 인상률(임금총액 기준)은 3.6%로서 전년동월(4.5%)에 비해 감소하였으나, 임금결정 진도율이 5.6%로 전년동월의 7.6%에 비해 미진

- ◎ 2014년 1~4월 평균 명목임금(임금근로자 전체)은 2.6% 상승하여 전년동기의 4.1%에 비해 부진
  - 상용근로자의 1~4월 평균 명목임금 상승률도 2.8%로 전년동기의 4.1%에 미치지 못하는데, 이는 정액급여 상승률이 낮은 데에 주로 기인(초과급여 상승률은 전년동기보다 높으나, 특별급여 상승률은 전년동기 실적에 미달)
  - 실질임금(임금근로자 전체)은 1.4% 상승하여 전년동기의 2.5%에 역시 미치지 못하는데, 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기보다 낮은데도 명목임금 상승률이 낮기 때문
  
- ◎ 2014년 4월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보다 1.6시간 감소(-0.9%)하였으며, 1~4월 평균 근로시간은 0.8시간 감소
  - 월력상 근로일수에 변화가 없는 가운데 4월의 상용 초과근로시간이 증가하였으며, 1~4월 월평균 상용 초과근로시간도 증가

### 최근 해외 고용동향

- ◎ 고용률로 볼 때, 한국의 고용률은 OECD 평균에 근접하여 있으며, 유로존보다 우수하나, 미국이나 일본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
  - 한국과 미국 및 일본의 고용률은 최근 수년 동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, 유로존의 고용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부터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다 최근 들어 미약한 회복세
  - 청년(15~24세)의 경우, 미국의 청년 고용률이 가장 높고, 다음으로 일본, 유로존 순인데, 미국과 일본의 청년 고용률은 다소 상승하고 있으나 유로존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하락
  - 잘 알려져 있듯이 한국의 청년(15~24세) 고용률은 유로존의 수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나, 최근 들어 다소 개선

- ◎ 유로존의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가운데 최근 들어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며, 한국과 일본의 실업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고, 미국은 중간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아직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미달
  - 한국과 일본의 실업률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며, 경제전체 실업률은 한국이, 청년 실업률은 일본이 보다 낮은 상태 지속
  - 최근 들어 일본의 청년 실업률이 계속 하락하는 반면,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양자의 격차가 확대
  - 미국의 6월 실업률이 6.1%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나, 고용률은 더디게 회복
  - 반면 유로존의 실업률은 매우 높은 수준에서 개선되지 못하고 있었으나, 5월 들어 11.6%를 기록하여 미소하게 하락하는 모습
  
- ◎ 유로존 가운데 독일의 고용성고가 여전히 우수한 반면, PIGS 국가들의 고용상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지속
  - 독일의 고용률은 2014년 1분기에 73.4%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, 2014년 1분기 청년 실업률은 전 분기와 동일한 7.9%에 불과(경제전체 실업률은 5.2%)하며, 2014년 5월 실업률도 경제전체 5.1%, 청년 7.8%에 불과
  - 반면 스페인의 경제전체 실업률은 2014년 5월에 25.1%이며, 청년 실업률은 54.0%, 그리고 2014년 1분기 경제전체 고용률은 55.3%이며, 청년 고용률은 16.6%에 불과
  - 그리스의 2014년 1분기 경제전체 실업률은 26.9%로 높고, 청년 실업률도 57.1%로 매우 높으며, 실업률을 월별로 보더라도 2014년 3월 경제전체 26.8%, 청년 57.7%로 높은 상황인 반면, 2014년 1분기 고용률은 49.0%에 불과하고 청년 고용률도 12.1%로 열악